

진짜 별이 된 영화배우 안성기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세모(歲暮)'가 삼각형이야?

세모(歲暮)라고 하니 아이들은 대뜸 삼각형을 생각한다. 한자를 배우지 않은 까닭이다. 설날그믐에 대한 말 중에 아세(亞歲)라는 말을 했다. 불기에서는 동지를 아세라고도 한다는 말을 했다. 동지는 그만큼 해가 바뀌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날이었다. 한자어로 세모(歲暮)란 '해세, 저물모'자를 써서 '한 해가 저물어 설을 바로 앞둔 때'라는 뜻이다.

이 '세모'라는 말에는 동의어도 참으로 많다. 그만큼 의미가 깊은 날이다. 세밀, 세만歲晚, 세종歲終, 세말歲末, 세지歲底, 공갑窮臘, 제석(除夕) 등등 다양한 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연말(年末)'과 '연사(年始)'를 함께 쓰기도 한다. 하루 차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세모와 설날은 큰 차이가 있다. 국가 단의 차이와 같다. 국(國)은 '끝나는 끝'이고, 단(端)은 '시작하는 끝(살마리)이다.

세모에는 묵은세배를 다닌다. 1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어른들께 인사를 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그믐에 짐을 지면 안 된다. 옛날부터 설날그믐에 짐을 지면 눈썹이 하얗게 선다는 말이 있다. 짐을 자기 말고 묵은세배 다닌다는 말이다. 보통 새해를 맞이 전에 집 안팎을 청소하며, 차례를 위한 음식 준비를 한다. 그래서 설날그믐을 '작은 설(小歲)'이라고도 한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 · 한국어문화학회 회장



미디어 프리즘

맹세희
사회부장

국민배우라는 호칭이 그만큼 어울렸던 배우도 드물다. 5일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 말이다. 영화를 좋아했던 젊은 시절, 많은 청춘들에게 안성기는 한국의 알랭 드롱이었다. 히트작 제조기였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는 빛이 났다. 170편의 영화를 촬영한 안성기는 그의 표현대로 '영화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배우다. 명실공히 한국 영화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60 여년 연기 경력의 주인공이다.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는 안성기였다. 영화 '고래사냥'의 거지에서부터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 '한반도'까지 그는 영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의 절제의 미학은 독보적이었다. 임권택 감독은 "안성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이 생겨났을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배우"라고 했다.

당장 떠오르는 작품만 꼽더라도 '고래사냥(1984)' '깊고 푸른 밤(1985)' '칠수와 만수(1988)' '투깝스(1993)', '태백산맥(1994)' 최초의 천만영화 '실미도(2003)' '라디오 스타(2006)' 등 한국 영화사의 주요 작품 속에는 배우 안성기가 있었다.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안성기는 여섯 살 때 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1957)'에서 아역으로 처음 영화에 출연했다. 70여 편에서 아역을 하다가 진로와 관련해 10년의 공백기를 가졌다. 그러다 영화 기획 일을 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계몽



5일 별세한 배우 안성기의 서울성모병원 빈소에 훈장이 놓여 있다. 정부는 고인에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영화 '병사와 아가씨들(1977)' 조연을 맡으며 다시 배우가 됐다. 그의 70년 가까운 영화 인생의 본격적 막을 열었다.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부 덕배 역이 재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영화로 인생의 막을 내렸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17년 그의 데뷔 60주년 특별전을 '한국 영화의 페르소나, 안성기전'으로 명명했다. 그의 필모그래피 자체가 한국영화사라는 평가나 다름없다.

그의 영화배우로서의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매력은 정치적 진영의 판가름기마저 무력화시켰다. 김대중 정부 때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제의받았으나 고사했고, 수차례 국회 비례의원직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현장에서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에 인생을 걸고 있다"며 배우의 길을 고수했다.

한국 3대 영화 시상식인 청룡영화상·백상예술대상·대중상영영화제 모두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82

년 제21회 대중상 남우주연상('철인들')을 출발점으로 2012년 제48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부러진 화살')까지 무려 30년에 걸쳐 최고 정상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건강이상설이 대두됐지만, 2021년 5월 개봉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복귀했다. 한국 영화사의 또다른 산 증인 '대한극장'에는 이 작품의 포스터가 수년간 붙어있었다. 국민배우에 대한 오마주였던 셈이다. 대한극장은 2025년 최종 폐관을 결정했다.

안성기는 2022년에도 알츠하이머 딸을 돌보는 아버지 역의 '카시오페아', 한산 앞바다의 물길을 꿰고 있는 장수 어영담으로 출연한 '한산: 용의 출현'에 등장해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이른 바 할애암을 진단받은 후 투약 투혼이었다.

그가 가장 좋아한 자신의 영화는 '라디오 스타'였다. 그는 "자극적이지 않고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라서 좋다"고 했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영화라서 그랬던 걸까. 안성기는 2020년 투병 중에도 연기와 자신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쓰러져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무대 하늘로 돌아갔다.

정부는 이날 그에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장례는 안성기 배우가 이사장으로 있던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관해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원로 배우 신영균, 위원장은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배창호 감독 등이 맡았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인기 스타가 하늘의 진짜 별이 되었다. msh@skyedaily.com

전세는 오르지 않았다... 사라졌을 뿐이다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이상준
주필 황종택 인세인 임재창

(주)스카이드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1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가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6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드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 Talk

김나윤
산업경제부 기자

전세 시장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고 있다. 가격 변동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할 수 없음'이다. 거래가 멈춘 시장을 안정이라 부를 수는 없다. 2026년을 맞은 지금, 전세 시장의 체감 불안은 통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000건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하반기 연중 최저치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전셋값 급등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급이 줄어들 결과일 뿐이다. 유통되는 물건이 사라진 시장은 언제나 가격 불안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전세 실종은 정책의 부산물이다.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겹투자 차단이라는 목표는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전세 공급의 한 축도 함께 무너졌다. 기존에 전세로 풀리던 주택들이 집주인 입주로 전환되며 시장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쳤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이 막힌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선택했고, 이는 신규 매물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사랑(가명) 씨는 전셋집을 찾다 결국 월세를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는 저축을 가로막고, 전세사기 위험까지 더해지며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전세는 한때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였지만,

이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제도가 되고 있다.

전세 실종은 곧바로 월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평균 월세는 1년 새 10만 원 넘게 올랐다. 전세가 막히자 수요가 월세로 몰렸고, 이는 다시 가격을 밀어 올렸다.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0%를 넘어섰고, 비아파트에서는 70%를 훌쩍 넘겼다.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가계 소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여윌돈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주거비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득 증가분을 잠식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다.

한계소비성향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며 외식, 여가, 문화 소비부터 줄이게 만든다. 실제로 청년층의 여가비 지출 의향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주거

비 압박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은 여전히 가격 지표 중심의 '관리 가능' 메시지를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전세 시장의 문제는 과열이 아니라 실종이다. 선택지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체감 불안이 통계보다 먼저 움직인다. 전세가 막히면 실수요자는 월세로 밀려나고, 결국 매대로 떠밀린다. 이는 다시 집값 불안의 씨앗이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인정이다. 겹투자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전세 공급과 청년 주거, 소비 여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직시해야 한다. 전세 시장의 경색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이를 외면한 채 집값만 바라보는 정책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울 뿐이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nykim@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